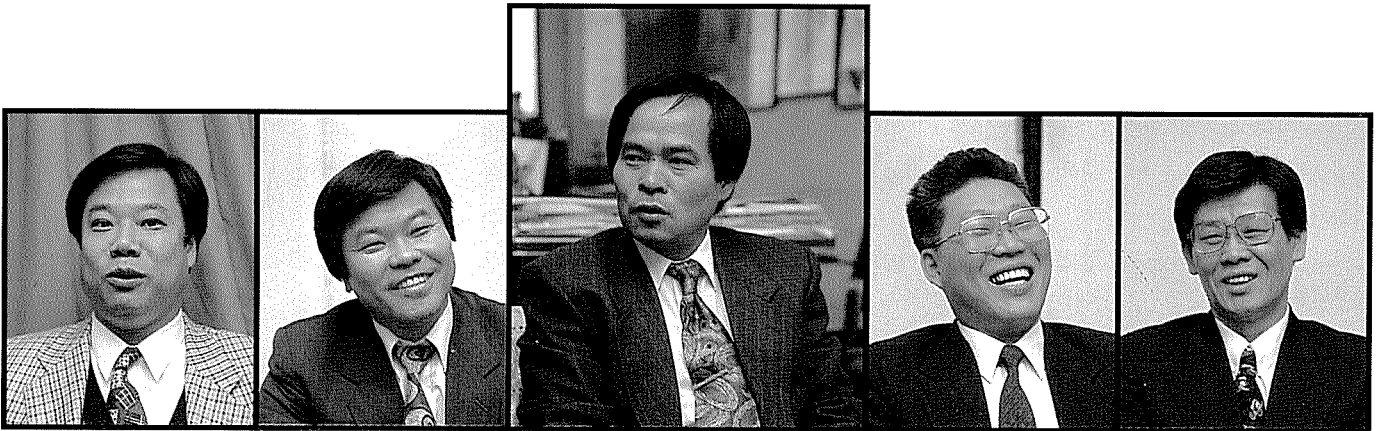


회원 친목과 공동이익 위해 힘쓴다

성북 지회

성북 지회의 독특한 친목의 힘은
지역별 이사 제도에서 나온다.
이 제도를 통해 친목을 강화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회 발전을 위한
거울로 삼고 있다.



김춘수 부지회장

양희춘 부지회장

이기섭 지회장

김옥수 부지회장

김병규 감사

사람들은 살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종 문명의 기기(利器)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뚫는다.

그런 면에서 편안함을 좇는 사람들의 욕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곳이 서울이라 할 수 있다. 거리에 넘쳐나는 많은 사람들, 높게 치솟은 빌딩,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물결과 소음은 서울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어 버리고 살기에 오히려 개발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 하는 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 높지 않은 건물과 화려하지는 않지만 낮은 집들, 어릴적 놀던

추억의 거리 풍경 같은 모습이 조금은 남아 있는 성북지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게 있어 '사람 냄새'가 나는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만나는 거리, 사람마다 정겨움이 묻어나는 지역에 위치한 성북지회(지회장 이기섭)가 창립된 것은 1968년.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타 조직의 탄생이 다 그러하듯 초기 친목 모임에서 출발해 서로의 뜻을 모으고 '성북 지회'라는 하나의 어엿한 실체를 갖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움의 연속이듯 성북 지회의 오늘을 위한 지난 날은 말 그대로 업계 역사의 한 단

면이다.

초기 동대문 세무소 옆 태극당 예식장의 사무실을 빌어 쓰던 성북지회가 80년 중반에 보문동으로 독립하여 토대를 다지면서 기틀을 마련하고 3년전 지금의 월곡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까지 류호열 고문을 위시해 조권형, 이상춘, 이근용 고문 등의 임원과 회원간의 지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30여 동(洞)을 관리하며 120여 회원으로 구성된 성북 지회는 지회장을 위시해 3명의 부회장, 2명의 감사를 비롯 12명의 이사가 구심점이 돼 특유의 친목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회(支會)이기도 한 '성실, 인화, 봉사'의 친목의 힘은 성북 지회가 운영중인 지역별 이사 제도에서 나온다. 12개 지역별로 이사를 두어 자체 친목을 다지는 한편 지역에서 제기된 회원들의 의견을 이사 간담회를 통해 수렴하고 있다.

또한 반대로 이 지역별 이사 제도는 협회에서 수행하는 공동 구매 사업이나 지침을 회원에게 훌륭히 전달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회원간의 친목이 더욱 공고해져 업소간의 반목을 찾아 볼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단계까지 이르렀으며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하는 상호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지역별 이사 제도로 얻은 큰 소득이다.

이밖에 지회 차원에서도 1년에 한번 전 회원이 모여 아유회를 갖는 등 지회와 지역 상호간 회원 친목을 위한 성북 지회의 노력은 각별하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 외에 성북 지회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술 세미나도 회원을 하나로 묶는 중심점이 되고 있다.

특히 성북 지회가 실시하는 기술 세미나는 일반적인 외부 초청 강사 세미나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미에서 성북 지회는 회원 업

소 중 상품성이 있으면서 현재 재과점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선정, 세미나를 실시해 회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타 지회에 비해 회원 수 면에서는 작지만 알차고 친목과 회원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성북 지회는 올해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크지는 않지만 알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실시해온 공동 구매 사업을 올해는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며 회원업소에 필요한 재료를 확대해 지역별로 공동 구매토록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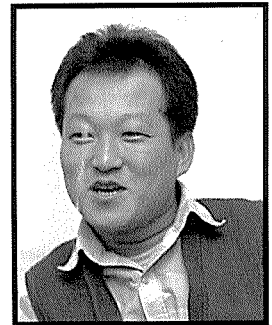
이밖에 회원의 매출 향상을 위해 업소 중 판매 유망 상품을 선정해 실시하던 기술 세미나

**성북 지회의 기술 세미나는
일반적인 외부 강사 초청
세미나와 다르다.
회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업소 중 판매 유망 상품을 선정,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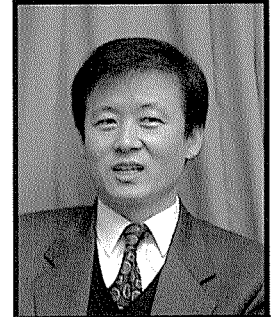
를 보다 현실감 있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율 위생 지도 등 본연의 임무와 그동안 회원 친목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별 이사를 통한 친목의 강화와 회원 의견 수렴에도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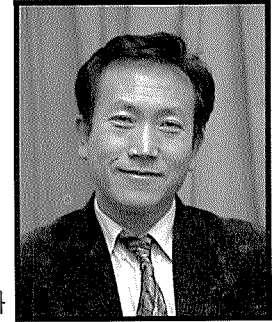
앞으로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 성북 지역도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침체된 상권은 활



김삼열 이사




김정률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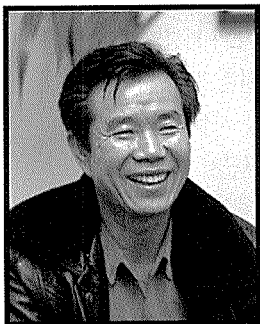


유영철 이사

기를 맞게 되고 새 상권 부상에 따른 회원의 증가 등 발전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는 곧 성북 지회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발전에 따른 변화가 필연적이라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회원 상호간의 끈끈한 유대와 친목, 회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이다.

이런 면에서 외형적 발전과 함께 우리가 훗날 성북 지회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것은 그동안 보여온 성북 지회의 회원 친목을 위한 노력과 이익 극대화 노력이 계속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글 박종선> 



최부근 감사



손재록 상무



김귀동 이사

조광형 이사

이승길 이사